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4월 21일 (제1250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나를 내나라

우리 어머니는 '명예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셨으니 나에게 여한은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문득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라고 물으시면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님, 저는 아들 셋을 목사로 드렸고, 딸도 드렸고요, 손자도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이초석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주를 위해 특별히 하신 일은 없지만, 네 명의 자식과 두 명의 손자가 주의 종이 되었으니 당당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주일마다 나에게 밥을 해주는 권사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물으시면, ‘저는 이초석 목사 밥을 40년 동안 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해라.”라고 했다.

“저는 이초석 목사를 도와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초석 목사를 도와 유아유치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초석 목사를 도와 지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놓아라. 내가 잘 나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우리 선교팀이 나와 같이 다니니 내가 대통령 궁에 들어갈 때면 그들도 들어가더라. 내가 재상들을 만나니 그들도 함께 만나더라. 그들이 나에게 별식을 대접하니 그들도 함께 먹더라. 바로 이런 이치를 알기에 그런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을 상을 안다.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을 나는 알고, 또한 믿는다. 그러니 나를 내밀어 나와 함께 하라는 것이다. 내가 받는 상을 여러분도 받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었나?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고, 그날의 상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왕이면 더 큰 상과 더 많은 상을 받아보자. 많은 자들이 부러워하며 기립박수를 치도록!

너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원에 왔느냐?

어느 때보다 파사로운 4월에 성산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가득한 추억을 선물하셨다. 특히 찬송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수가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였다.

목사님은 춘계산상집회 첫날 첫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각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 용신할 틈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높여 그 집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멸절한 남의 집 지붕을 뚫는데, 가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목표에 집중하여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더니 중풍병에서 놓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

고 우리아를 완전범죄로 꾸며 죽인 그였지만, 죄를 인식하는 순간 침상을 적시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사울은 핑계를 대기 바빴고,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나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 내가 단에 서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생각으로 모든 집회에 임했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



2024 춘계산상집회(4월 15일 ~ 18일, 장성 에루살렘기도원)

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복과 저주를 받는 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으니 저주가 임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영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 방법을 찾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핑계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문제를 친구 삼고 방법을 찾습니다. 반드시 길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 권력만 탐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아의 처를 범하

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 바로 이어질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집회나 전주실내체육관집회, 베네수엘라(Venezuela)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에도 동일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르다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도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야외식당



아침제초



성령의 역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47:12~15)

기도와 찬양이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사막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행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는 시편 147편 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다’는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곧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고 말씀하셨고, 시편 33편을 통해서도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길을 달리기 위해 기름을 받았으니 달리는 것이 마땅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 지어졌으니 나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찬양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런데 마땅히 할 도리를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다며 찬송을 1절만 부르고 맙니다. 믿는 자의 가정 안에서도 세상 노래가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 의무요, 도리일진대 그것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교회도, 가정도 물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안에 생명이 없게 되지요. 자동차나 비행기가 달리지 않고 날지 않으면 녹슬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 넘치고, 가정에 넘치면 오아시스가 터지게 됩니다. 사막에서도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유실수라면 열매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양이 넘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볼까요?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에 대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

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은 악령에 의해 심신이 억눌려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울 왕을 치료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오래 전, 멕시코 집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느 여인을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와중에도 죽어도 용서 못한다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안고 오랜 시간 찬양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들었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녀에게 ‘그를 용서해라. 그를 용서해야 네가 산다.’고 재차 말했더니 계속 울던 그녀가 ‘이제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해진 것입니다. 찬양이 그의 마음을 치유했고, 마음이 치유되니 육체도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찬양을 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귀신이 들려 잠을 하는 여인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이 일을 빌립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옥 안에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인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행16:26).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

었던 사슬이 저절로 풀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평하는 입 대신 찬양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묶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저주의 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셋째, 찬양하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거든요. 하여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 두려워 말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본시 전쟁에 나가면 기병을 맨 앞에 세워야 하건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대하20:22)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온 세나라의 연합군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사 서로 치고 찌르고 전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자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넷째, 찬양하면 축복이 옵니다.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찌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찌어다 저가 네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

을 썩 부스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147:12~18).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노래 잘하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삼하23:1). 다윗은 여호와와 께가 들어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였고(삼하6:5), 다윗성에 입성할 때는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삼하6:20).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해를 당치 않고, 마침내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친 것은 그가 불평대신 늘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찬양은 꼭조 있는 기도이다

산상집회 때면 한 번도 빠짐없이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처음 서너 마리로 돼지 사육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3만 마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 하는 말을 빌리면, “지금까지 우리 사육장에는 구제역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50m 앞 마을까지 구제역이 왔지만 우리 사육장에는 얼씬도 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항상 돼지 사육장에 찬송을 틀어놓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여 악령과 귀신이 떠나가고 경내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니 번성할 수밖에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시47:1).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하였고(시150:4),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고도 하셨습니다(시150). 그리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시67:5~7). 여러분, 찬양은 꼭조 있는 기도인지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말씀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시150:6)는 말씀은 맥이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말보다 발자취를 보자!

얼마 전, 거리 곳곳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동원들을 보며 가족들과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아이들이 토론을 벌였다.

“사람을 고를 때는 그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살펴봐야 해!”

“지도자라면 얼마나 높은 비전과 의지를 지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자기를 땀 흘려 학교 회장단 선거에도 출마해서 당선된 이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 한동안 열띤 논쟁이 벌어지다가 뜬금없이 아빠를 끌어들이는 거였다.

‘사람을 선택하고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나?’는 아이들의 질문에 주저 없이 한마디 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공약이나 말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라’고. 그렇다. 발자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가 남기고 간 발자취가 곧 그 사람인 것이다.

시간과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어림짐작’하게 된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알고리즘과 반대되는 직관적 판단, 곧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부른다.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표현은 휴리스틱이 지닌 오류의 가능성을 잘 표현해준다. ‘십인십색’이라, 사람은 저마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말 몇 마디로 어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으랴! 어불성설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한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2시간 전까지도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탱크가 국경선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설마 국가 지도자가 저렇게 말했는데 전쟁을 일으키겠어?’ 수많은 전문가조차 그렇게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를 우린 잘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푸틴과 다를 바 없었다. 히틀러는 전쟁 준비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침공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대전의 전문이 감돌자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총 세 차례 히틀러를 만났다. 그때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매우 이성적인 인물이라 평가했다. 결국 그의 오판으로 세계는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총회장님의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움직이는, 파급력이 강한 이유 또한 그렇다. 행동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을 분별하고자 하면 그의 말보다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19~20).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영성에 이르는 길::

돌아온 탕자처럼

십수 년 전, 속해있던 공동체에서 봉사 부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고 얼마 안 되어 시험이 들어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귀한 직분을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교회를 떠났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이 일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리라 생각하니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전혀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길어지고 저의 인생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마음도 병들어서 살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극에 달하니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더 이상 중

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도 피하기는 커녕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탕자를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줍니다.

최성경 전도사



:: 교단소식 ::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이것은 행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지난 4월 13일(토) 오후 2시,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열린 월드프레이즈 찬양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은 먼저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라는 찬송을 꼭 합니다. 하루도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

자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뿌리가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듯,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찬양이 그친 성도, 찬양이 그친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 ‘하나님께 찬양함이 지극히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50편을 통하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흡수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147:12~18). 묵인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을 하세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찬양을 하세요. 삶이 허덕일 때 찬양을 하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월드프레이즈 찬양 예배는 이월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1부와 2부로 이어진 모든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

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곡조있는 기도였다. 이월드 목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행4:12)라며 이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했다. 이번 찬양제의 선곡은 청장년층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이루어져 소외됨 없이 함께 부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으뜸은 ‘Nothing is impossible(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이라는 곡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시인케 함으로 앙코르까지 받았다.

이번 찬양전도집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동역자들의 릴레이 금식은 물론이요, 총력 전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 서울과 인천, 각 지교회 교육부서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소서.’

윤보혜 생도

:: 동행하는 삶 ::

:: 참된 깨달음 ::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치원생인 우리 집 둘째 아이는 군것질을 참 좋아한다. 어찌나 좋아하는지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장난감 서랍장에 숨겨놓고 먹다가 들킨 적도 있었다. 하도 그러니 나도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던 어느 날 저녁, 둘째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왔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올라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얼른 아이를 씻기고 약을 먹인 후 재웠다. 잠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눈물이 나고 무지한 엄마임을 회개하였다.

다음 날 아침 아이에게 “어제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오늘은 음식을 조심해야 해. 군것질을 줄이고 엄마가 주는 간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한 후 바나나와 고구마 등 과일과 야채로 간식을 먹였다. 아이도 지난밤 놀랐던 터라 협조를 잘해 주어 몸에 좋지 않은 군것질거리들은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간식들을 곧잘 먹었다. 그러다 보니 ‘진작 이렇게 했어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서인지 오히려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다시금 깨달았다. 평소 목사님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아이가 원한다는 이유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어느 정도 제한만 했지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는 노력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 몸에 좋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데, 젤리, 캐러멜, 초콜릿...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허용하고 있었다.

평소 먹는 음식이 건강과 직결된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인 나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좀 더 몸에 좋은 음식을 해먹이고 챙겨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작년에 남편도 건강검진 수치가 좋지 않아 청장년부 자매님들의 권유로 CCA 주스라는 것을 첫째 아이와 함께해주고 있다. 어느 한약사가 추천

하는 과채주스로 붉이 된 것인데, Carrot(당근), Cabbage(양배추), Apple(사과)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이 CCA 주스이다. 이 주스와 함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살아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가공식품은 덜 먹이려 하고 있다.

두드러기도,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장은 너무 속상한 마음이 크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된다. 이번 일로 육체의 건강을 다시금 신경 쓰면서, 더 나아가 나와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술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든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제가 감동받은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필자가 신학교에 다닐 때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찾아와 흥분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21:21~22) 하는 말씀이 있어. 넌 이걸 믿어? 이게 진짜란 말이야? 필자는 친구의 흥분에 오히려 놀라서 “그럼, 진짜지. 믿고말고.” 그 대답에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무한해 보이는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 왜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 순간 필자는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믿는 사람의 기쁨은 기도의 응답에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그러나 사탄은 기도보다 자신의 노력, 인간과의 교류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기도하는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를 찾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사탄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표를 갖고 은행에 가면 당연히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2024년 봄,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맘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Good News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서러운 일들이 많지만, 집 없는 설움이 제일 크다고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집 장만해놓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땅에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머

리 둘 곳만 있으면 되는데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내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처럼 빌붙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영혼들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아파트와 주택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많더라도 청약조건을 갖추었거나 돈을 준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파트는 청약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지만, 천국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조건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꼭 살아생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20).

성경은 혈기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죄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히 분하여”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왕도 “심히 노하여” 남자아이들을 전부 살해하였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자주 내거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속에 화가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간다면 화로 인해서 내 몸이 병들고 주위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혈기를 간의 화(火)와 심장의 화(火)로 크게 나눕니다. 간의 화는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러

한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의 화는 자신을 향해 화를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화는 현대 영상의학의 기술로도 검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 안의 분노가 지속적으로 분출되는지 나와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분노 때문임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의 열을 끄는 시호,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항부자, 치자와 같은 약재들은 간과 심장의 화를 빼내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약재들입니다. 증상에 맞게

생강 대추와 함께 하루 4g씩 차처럼 마셔도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 분노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들면 효과가 있습니다. 불평할 상황을 감사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열 번, 삼십 번, 오십 번 이상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덜하고 화가 쉽게 지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화가 줄어들고 마음과 몸의 평안함을 통해서 나와 주위가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